

# 총선 불출마 임종석 “경문협 중심 활동”



### 폐북 통해 불출마 선언 “다시 통일운동 매진”

### 任측 “민주당 · 586의원들과 사전교감 없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 만 34세의 나이로 16대 국회의원이 되고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중에서도 대선 캠페인부터 비서실장까지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한 2년 남

짓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잘한 결정인지 걱정도 된다. 하지만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꾸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뛰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당 안팎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른바 ‘586 쇄신’ 바람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586세대는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로,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학번으로 대학교 생활을 했고 현재 50대 나이를 가진 세대를 뜻한다. 정치권 중심 세력으로 자리잡았지만 선거 때마다 ‘뭉개기가 필요한 세대’로도 꼽힌다.

임 전 실장 측은 ‘586 쇄신’의 선봉에 섰다는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 측은 뉴스과의 통화

에서 “이번 일(불출마 선언)을 결정하면서 한편에서 나오는 ‘586 퇴진’에 대한 고민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임 전 실장은 임 전 실장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586 의원들과의 사전교감도 없었다”며 “향후 행보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전 실장은 앞서 내년 총선 출마 외에도 차기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등으로도 이름을 올렸으나 당분간은 경문협 일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해당 재단은 남북 방송을 대치해 대한민국 내 북한 저작물 이용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불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선열의 열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14년 전인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덕수궁 중명전에서 순국선열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바른미래 “유시민, 국민 정신건강에 ‘독버섯’”

바른미래당은 17일 유시민 노무현대단 이사장이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듯이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 정신 건강에 독버섯이 되기 한 유시민”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 이사장을 향해 “요

설가(妖說家)의 요설(妖說)이 요란(擾亂)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정신 나간 헛소리”를 들어야 하는가”라며 “혹세 무민도 하루 이틀”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언제든 구속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구속되는 것이다. 설마 조국 일가가 하는 짓

이 누구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어김없이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유시민의 발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무가내식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유 이사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들은 조국 털듯이 태어도, 나올 것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 ‘민주당 입당’ 손금주

### “총선 승리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15일 손금주 무소속 의원에 대한 입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2020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입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결정을 해준 민주당 지도부와 동료 선우배 의원님, 당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늘 정의를 마음에 새기고 초심으로 정치를 하겠다. 성실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준 나주-화순 지역민 여러분과 지지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당 후 역할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달성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공동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당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바른토론크에 참여한 청년 2명, 청년정치학교 출신 청년 2명, 청년위원회 및 청년당직자로 활동한 청년 2명, 변호사 1명 등이 참여했다.

## 변혁 신당기획단 “상상못할

### 참신함으로 국민에 다가갈 것”

#### 첫 회의…40대 단장 · 80년대생 위원으로 구성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신당추진기획단이 17일 첫 회의를 갖고 “젊은 정당다운 진정성으로 기존 정당은 상상 못할 참신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은희 · 유의동 공동단장을 비롯해 변혁 신당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신당기획단은 지난 한주간 1980년대생의 당내 젊은 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했다. 권 · 유 공동단장 역시 40대 국회의원이자, 이날 현장에는 김현동 · 김지나 · 이기인 · 오세림 · 주이삭 위원 등이 자리했다.

권 공동단장은 “이분들은 선거철에 맞춰 영입된 분들이 아니라, 그동안 당의 청년정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해온 분들”이라며 “정치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다. 이들과 함께 정치 혁신을 일으켜내겠다”고 말했다.

유 공동단장도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실책에 국민의 불만은 증대했지만, 현재의 지리멸렬한 야권으로는 내년 총선에 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할 수 없다”며 “과감한 쇄신과 혁신으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청년을 불러 쓰고 버리는 악습을 버리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청년

을 중심으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지나 위원(경기도의회 의원)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문 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당이 되기 위해 참여했다”고 참여 취지를 밝혔다.

이기인 위원(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은 “해마다 정치인의 자격시험을 거쳐, 자기 공부를 게을리하고 자격이 미달인 의원은 당원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살벌한 정당.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혐오와 정치 혐오와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한다”며 “단장님들과 머리를 맞대 좋은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혁 신당기획단을 향한 경 고의 목소리도 있었다. 오세림 위원은 “솔직하게 말해 또 청년 팔아하는 구나 생각했다”며 “길지 않은기간이지만 청년팔아인지 확인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이삭 위원(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저희 위원들이 병풍이나 액세서리처럼 쓰일 것 같은 당장 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들을 끌고가는 포지션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현장에서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